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II.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한국선교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5.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성장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1) 한국 주재 선교사가 되기 이전 사역과 입국 배경



Harold Taylor(1904-1976.05.15)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는 1904년경에 태어났다. 그는 토마스 와 마리아 세이어(Thomas S. and Maria Etta Hoffa Sayer)의 딸인 에이더(Ada Maryellen Sayer)와 1924년경에 결혼하였다. 에이더는 1906년 1월 18일에 태어났다. 테일러는 에이더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러렌드(Leland)와 글렌(Glenn)을 두었고, 한국에서 페니 류(Penny Lou)를 입양하였다.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오기 전, 1945-1946년경에 티베트(Tibet)족의 선교로 유명한 러셀 몰스(Russell Morse)를 도와 중국에서 '윈난성 중국인기독교선교부'(Yunnan Chinese Christian Mission)를 이끌었고,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우마(東京都 世田谷区 上馬)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이끌었다[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세력을 크게 확장하자 미국 영사가 선교사들에게 중국을 떠나라고 충고하였고, 이에 테일러는 가족을 미국에 보내놓고 자신은 중국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무렵 요츠야선교부의 해롤드 심즈(Harold Sims)가 테일러에게 일본으로 올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테일러는 상황이 좋아져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요츠야선교부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테일러는 1949년 10월 18-20일에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 그리스도인 대회에 강사로 참석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기 전까지 요츠야선교부에서 협력자로서 사역하였다<"Welcome to the Taylors," *Tokyo Christian(TC)*, 1949년 9-10월호; Mr. and Mrs. Harold Taylor, "Red Threat Forces Taylors to Flee China," *TC*, 1950년 7-8월호>.

테일러 부부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름을 따서 가미우마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 교인이 20여명쯤 되었을 때인 1953년에 테일러 가족은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돌아갔고, 그 사이에 커닝햄 사후에 요츠야선교부가 1948년에 설립한 동경성서신 학교에 다니는 젊은 신학생이 교회를 맡았으나 교회가 퇴보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젊은



일본 거주 선교사들과 러셀 몰스 선교사 가족(1952년 6월 27일)
 러셀(Russell Morse)이 미얀마 접경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에 공산군에 체포되어 일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15개월간 옥중에 갇혀
 되었다가 풀려난 직후 도쿄 요츠야선교부에 도착하여 선교사들과 찍은
 기념사진. 앞줄 좌측부터 그레이스 배반햄, 로트 심즈, 로이스 심즈, 실비아
 심즈, 케닝햄 여사, 스티븐 플리노어, 플리노어 여사(줄리언스 모친), 줄리아
 플리노어(Fleenor), 게트루드(Gertrude)와 러셀 몰스 부부, 둘째 줄
 좌측부터 마벨 버트레이(Mabel Buttray), 에스더 힐 이사벨
 디트모어(Dittmore), 에이버 테일러, 라번 몰스(La verne Morse,
 러셀의 아들, 조동호 목사의 온사), 제인 키넬(Kinnett), 셋째 줄
 좌측부터 스탠리 버트레이, 폴 버트레이, 줄리언스 플리노어, 해롤드 심즈,
 해롤드 테일러, 비반즈 여사(에스더 힐의 모친), 버지니아 플리노어.

신학생 나카무라(M. Nakamura)가 맡은 다음부터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테일러 선교사 가족이 1954년에 도쿄로 돌아와 부흥회를 개최하면서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다. 이듬해인 1955년 봄에 나카무라는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 교회에 출석하던 자매 야에코 가마다(Yaeko Kamada)와 결혼하였고,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혼슈 지방으로 목회를 떠났다. 나카무라가 떠난 후 테일러가 그 교회를 다시 맡아 1955년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를 맡아 동년 11월 13일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섬겼다. 테일러가 한국으로 떠난 후 그 교회는 요츠야선교부와 합의하에 일 본양식으로 건축된 선교사 주택을 예배당 겸 사택으로 매입하였다. 매입비의 절반은 교회가 다른 절반은 테일러 선교사가 부담하였다. 테일러가 한국으로 떠난 후 가미우마 지역선교는 앤드류 패튼(Andrew Patton) 이 맡았다(Andrew Patton, "Kamiuma Church," TC, 1956년 겨울호).

해롤드 테일러가 한국 주재 선교사가 된 배경에는 존 J. 힐의 첫 번째 부인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의 외도가 있었다. 이 일로 힐과 폴 잉그램과 존 채이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였다. 힐은 에스더의 비행은 존 채이스 선교사에게 폭로한 폴 잉그램에게 나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에스더의 비행 소식을 접한 채이스와 힐의 모교회 장로들,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 CS)지의 편집자와 다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후원자들은 힐 가족의 한국선교사역 승인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힐이 한국기독교회선교부와 한국인들 사역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록 권고하였다(“Regarding the Chase Telegram,” CS, 4 Sep 1954: 562; 27 August 1955: 546, 555). 1954년 9월 하순에 내한한 채이스는 성낙소, 힐, 잉그램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힐과 잉그램을 귀국하도록 조치하였다. 폴 잉그램은 1955년 1월 8일 귀국하였고, 힐은 버티다가 1955년 7월 5일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나야 했다(〈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교회 유지재단, 2006): 24; 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약기파 합동 건,”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김종기, 조동호 편집(그리스도의교회 연구소, 2010)). 그리고 존 채이스 자신은 1955년 11월 말에 입국한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선교사 부부에게 ‘기독교회선교부’의 모든 사역(목회자 양성, 교회설립, 보육원운영, 등)과 재산(송월동 선교부 건물과 토지, 신학교 교사, 보육원, 등)과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짓기 위해 수년간 모금한 기금까지 모

두 물려준 후 1956년 1월 13일 한국선교에서 손을 완전히 뗐다(John T. Chase, "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S, 28 January, 1956: 60).



해롤드 테일러 가족(Harold Taylor Family, 1950년경).
해롤드, 러렌드(Leland), 글렌(Glenn), 에이다(Ada)

존 T. 채이스와 존 J. 힐 사이에 불거진 불협화음은 1953-54년에 미국에서 기사화되곤 하였다. 그 무렵에 해롤드 테일러 가족은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을 모두 읽고 있었다. 테일러는 1953-55년 사이에 채이스와 힐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입장차가 있음을 알고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두 사람 모두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에서 은퇴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테일러가 한국에 왔을 때, 내국인 사역자들이 테일러에게 채이스 편인지, 아니면, 힐 편인지를 묻곤 했다. 이신 목사는 힐 선교사에게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의 문화와 관습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적어 보냈다. 존 J. 힐 선교사는 이신 목사의 편지를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자신을 선교사로 와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발행되는 선교관련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월간지 <환원전령>(Restoration Herald) 1956년 5월호에서 밝혔다. 그 기사는 힐 선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 글이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진짜 문제가 내국인 지도자들이 믿고 실천하는 것들이 무슨 기독교인지를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테일러는 또 내국인 사역자들이 선임 선교사들, 곧 채이스와 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테일러 자신이 어느 한 쪽 편에 서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국인 사역자들은 테일러를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다. 1956년 2월 7일까지는 테일러의 한국에서의 사역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나 그 이후 내국인 사역자들 가운데 아무도 채이스나 힐에게 한국으로 돌아 오라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황을 장악하였고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실례로 서울 종로구 관수동교회의 임 목사는 신학교 이사장으로서 힐에게 편지를 썼던 분이지만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확신하였다(“Unity and Peace,” For Christ in Korea(FCK), 1956년 6월호).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내린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실상과 전임 선교사들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에스터 비반즈의 비행에도 불구하고, 존 J. 힐에 대한 내국인 목회자들의 평판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존 힐의 처신은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에게 취한 것과 흡사하였다. 존 힐은 그녀와 이혼할 생각이나 선교를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한 존 힐을 일컬어 내국인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성자'라는 말이 돌았다. 존 힐의 가정사를 냉정하게 처리한 존 T. 채이스 선교사에 대한 내국인 목회자들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 채이

스의 하염없는 헌신과 수고를 모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내국인 목회자들이 이들 두 사람이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비록 그들이 뜻하지 않게 한국을 떠나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롤드 테일러가 넘어설 수 없는 더한 존경과 사랑을 한국인들로부터 받았다. 결국 존 힐은 1959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대전 가장동에 자리를 잡고 한국성서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들을 배출하였고, 김은석 목사의 텃밭이었던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지극히 섬겼다. 그 결과 존 J. 힐 곧 힐요한 선교사는 내국인 목회자들로부터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는 1955년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여러 해째 지속해왔고, 러셀 몰스(Russell Morse)나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과 같은 베테랑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켜본 경력선교사였다. 테일러는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복구과정을 지켜봤고, 6·25전쟁 직후인 1955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와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혁명을 거쳐 1972년 유신체제까지 격동기 19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테일러는 존 T. 채이스, 존 J. 힐, 폴 잉그램(Paul Ingram), 메리 반힐(Mary Barnhill),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가 했던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모든 사역을 인수받고, 1949년 이후 채이스 선교사가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지와 함께 모금운동을 펼쳐 모아놓은 거액의 ‘한국에 예배당’ 기금까지 인수받음으로써 날 수 있는 날개까지 얻은 셈이었다. 이 때문에 테일러가 한국에서 떠맡은 일들은 그가 중국과 일본에서 하던 사역들보다 훨씬 책임이 컸고, 또 자신의 뜻과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커다란 기회였다.

그렇다고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상황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결음마 단계에 있던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선교사들의 도움은 아기들에게 필요한 엄마들의 도움처럼 절실한 것이었지만, 에스더의 비행과 선교사들 간의 분열로 인해서,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의 저변에는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일정부분 깔려 있었다. 게다가 테일러 선교사가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토착적 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후원방식에서 미국식 정책으로 몰아가려는 태도에 반발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 이런 정서가 서울지역에서는 성낙소 목사를 중심으로, 충청이남지역에서는 김은석과 이신 목사들을 중심으로 표출되었고, 심지어는 테일러 자신이 주선해서 미국에 보낸 내국인 사역자들에게서조차 표출되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의 이런 태도를 분열주의 또는 교파주의로 보았고, 일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판단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도 했다. 한편 테일러 선교사가 분열파로 여겼던 내국인 사역자들도 현실적으로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심각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변증법적인 발전이 돋보였다. 선교부에 인접한 수도권에서보다는 오히려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김은석, 이신, 최요한 목사들이 주도한 충청이남지역에서 교회와 목회자 숫자가 더 빠르게 늘어났다.

테일러는 1950년대 후반기에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회하면서 관계를 쌓아갔으나,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돌아와 대전에다 ‘한국크리스찬미

손'(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과 한국성서신학교를 세운 존 J. 힐이 옛정과 내국인들의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인간적인 면과 거리상의 이유들로 인해서 충청이남지역의 사역자들과 더 긴밀히 연대함으로써, 선교사 일인체제에서 누렸던 리더십을 힐 선교사와 나눠 가져야 했다. 또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최윤권 목사, 최순국 목사, 안재관 목사 등에 의해서 선교회들이 늘어나고, 용산에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세워짐으로써 리더십은 더욱 다변화되었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러랜드(Leland), 에이더(Ada), 페니
루(Penny Lou), 글렌(Glenn), 해롤드(Harold)

1960년대 전반기에 테일러와 힐은 신학교를 세우고 키우는 일과 보육원들과 고등공민학교들에 전력을 쏟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나 경쟁심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들이 대부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다는 점에서도, 서울 선교부와 대전 선교부 사이에 어느 정도 경쟁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런 경쟁심조차도 오히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

회들에 변증법적인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반면에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는 같은 수도권에 있었던 데다가 테일러 선교사로서는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서울성서신학교에서 일해 줄 것으로 믿었던 내국인 사역자들, 곧 자신의 주선으로 미국에 들어가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내국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교였으므로 마음이 불편하였을 것이다. 이런 불화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수도권에 '최초'와 '전통'이란 수식어가 주어진 기독교회선교부와 서울성서신학교를 갖고 있었고, 고든 패튼(Gorden Patten, 배도은) 선교사 때인 1981년 3월 학기부터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서울성서신학교 캠퍼스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란 이름으로 통합됨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리더십을 취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5년 11월부터 1974년 은퇴할 때까지 한국에서 쏟은 헌신과 남긴 업적들은 후대인들에게 기리 기억되고 존경받을만한 족적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토착적 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후원방식과 '비교파교회 플랜'에서 미국식으로 몰아가려한 점과 그로 인해서 내국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점은 그의 업적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었다. 또한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관련 자료가 1962년 3월까지 뿐이란 점도 아쉬운 점이다. 1962년 이후 은퇴한 1974년까지 12년간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해롤드와 에이더 테일러가 쓴 글들은 <한길>에 많이 담겨 있다. 누군가 그 글들을 취합하여 연구한다면, 그의 관점과 사상 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롤드 테일러는 한국에 주재한 그 어떤 선교사들보다도 더 단호히 미국식 신약성경교회를 한국에 이식하려고 하였다.

2) 한국입국 이후의 사역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1955년 11월이었다<“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그가 한국에서 행한 사역들은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테일러는 추락된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테일러는 존 채이스(John T. Chase), 존 힐(John J. Hill), 폴 잉그램(Paul Ingram), 메리 반힐(Mary Barnhill), 리라 톰슨(Lila Thompson Hiller)이 했던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모든 사역을 인수받고, 추락된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존 채이스가 모금한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은 테일러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을 복원하고 분열을 치유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2)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순회하였고, 교회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① 1956년 1월 24-28일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서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FCK)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1월 중에 이신 목사와 함께 5일간 전라남도 지역의 교회들을 순방하였다. 전남에 19개(56년 연감에는 17개)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있었으나 5곳을 방문하였다고 적었다. 기차로 12시간 걸려 도착한 함평에서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한 목회자의 형제였던 고등학교 교장을 만났고, 이분이 마련해준 오래된 군용 트럭을 타고 날이 어둡고 눈이 쌓여 길이 미끄러워 위험천만한 시골길을 달려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마을 교회에 도착하였다. 함평에서 7마일(1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상점도 의사도 없는 40호 정도의 시골마을이었다. 신생(新生)이란 이름은 “새 삶”이란 뜻으로써 마을사람 전체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테일러와 이신이 방문한 날은 100일 저녁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다. 김은석 목사가 남긴 성경메모에 따르면, 김은석은 1월 22일 신생마을에 도착하였고, 1월 25일(수) 아침에 침례식이 있었다[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시시울, 2020): 175]. 이 언급으로 보아 테일러와 이신이 신생마을에 도착한 날은 24일 화요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일 아침에 국내 목회자들은 테일러에게 침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5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김은석은 테일러의 방문에 대해서 아예 침묵하였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날 수요일 오후에 영광교회를 방문하였고, 다음날 26일(목)에 115명의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보육원을 방문하였다. 테일러는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여러 상자의 의류구호품을 선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목포에 도착하였다. 테일러는 그곳에 아직 그리스도(인)의교회가 없지만, 한 장로를 만났다고 하였는

데, 테일러가 방문한 곳은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는 유달교회(순복음)였을 것이고, 그가 만난 장로는 목포시 죽교동 399번지의 진성구 장로였을 것이다. 유달교회는 진성구 장로의 집 2층에 있었고, 이 유달교회에 ‘그리스도의교회 성경연구소’가 있었다. 테일러는 진 장로를 통해서 목포에 그리스도(인)의교회가 들어서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테일러는 다음날 27일(금)일에 대전에 도착하여 대전보육원(판암동, 애생원)과 교회(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였다. 그리고 28일 새벽 4시 30분 기차로 서울로 귀경하였다<“To the Far Corners,” FCK, 1956년 6월호>. 그리고 일주일의 상당부분을 잠기로 침대에 누워 지냈다<“That They All Might Be One,” FCK, 1956년 6월호>.

② 1956년 3월 31일-4월 4일



대구 (신천동?) 그리스도의 교회 신축 예배당과 사택
(1956년 3월 31일)

테일러 선교사는 3월 31일(토) 최순국(통역)과 함께 대구교회를 방문하여 새로 건축한 예배당의 입당예배에 참석하였다. 일주일간 지속된 부흥회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7명의 새 신자가 침례를 받았다. 대구교회는 구 건물을 팔아 건축기금을 마련하였고, 부족한 돈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에서 지원받았다. 4월 1일(부활주일) 오후에 버스로 김천터미널까지 가서 또 한 시간을 걸어서 김천교회에 도착하여 저녁 설교를 하였다. 이날 밤에 4명의 결신자가 생겨 다음날 월요일에 저수지에서 침례식을 가진 후, 기차로 신탄진에서 내려 김동렬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를 방문하였다. 화요일에는 김은석 목사가 시무하는 부강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때 부강교회에



김천 (대변?)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서는 신화신학성경연구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의하고 저녁에 두 번 더 강의하였다. 이날 테일러는 총 5시간을 강의(설교)하였다. 그리고 새벽 2시 기차를 타고 귀경하였다<“Our First Chapel,” FCK, 1956년 6월호>. 김은석 목사는 이날부터 한 주간동안 부강교회에 머물렀으나 테일러 선교사의 방문에 관해서 성경통독메모에 적지 않았다.

③ 1957년 1월

테일러 선교사는 1957년 1월 신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기간을 이용하여 제2차 남부순회전도여행을 시도하였다. 광주와 목포, 제주(2개 교회가 있었음), 부산, 대전으로 이어지는 전도여행이었다<“Training Preachers,” FCK, 1957년 2월호>.

④ 1957년 3월 19-26일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 의하면, 테일러는 최순국과 함께 경상도와 강원도지역 교회들의 방문길에 나섰다. 그들은 3월 19일(화) 밤에 부산행 기차를 탔다. 이튿날 테일러와 최순국은 부산에서 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빌즈(Verlen Alex & Betty Bills) 선교사 가족을 만나 몇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울산으로 향했다. 울산 교회는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한국에 예배당’ 기금에서 1956년에 1,400달러를 후원 받아 장로교회로부터 헌 예배당을 매입하였던 곳이다. 테일러는 그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집회 때 설교를 했는데 120여명이 출석하였다. 이후 테일러와 최순국의 교회순방은 영양, 삼척, 강릉, 주문진, 38선 이북 고성으로 이어졌고, 26일 화요일 밤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울산에서 기차, 트럭, 버스를 타고 위험한 도로들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속에 자리 잡은 1,000여 호의 마을로 이뤄진 영양이었다. 영양에 외국인이 온 것은 처음 이어서 아이들이 예배 중에 외국어를 듣고서는 신기해하면서 웃었다. 작은 흙집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그 밤에 테일러와 최순국은 오(현팔)목사가 운영하는 한약방에서 묵었다.

테일러와 최순국은 토요일(23일)에 네 개의 다른 노선의 버스들을 갈아타고 동해안의 가파른 도로들을 달렸다. 목적지까지 3시간을 남겨놓은 지점에서 밤이라서 버스가 끊겼다. 주일날 아침 5시에 다시 출발하여 삼척교회에 일찍 도착하였다. 아침 9시에 삼척교회의 이 아무개 할머니가 해주는 아침식사를 먹었다. 삼척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 다니는 박병호 형제가 집에 와 있는 동안에만 섬기고 있는 곳이었다. 최순국은 이곳에서 한 차례 말씀을 전파했는데, 고향에 온 듯이 편안한 모습이었다고 적었다.

그들은 주일날 정오쯤에 교회를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강릉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주문진으로 향하였다. 저녁에 주문진교회에 집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주문진에는 김 아무개 형제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교회가 모였다. 그 주일저녁에 12명이 결신하였고, 이튿날 3월 25일(월)에 바닷가로 나가 12명이 침례를 받았다. 거대한 바위가 매서운 바닷바람을 막아줬지만 추위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구세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만큼은 드높았다고 적었다. 월요일 저녁에도 자정까지 집회를 열었다. 주문진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서 일 년간 공부한 여전도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날 오전에 침례를 받은 여신도들도 이 여전도사의 결실이였다.

3월 26일 화요일 아침 6시에 그들은 열 번째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38선 넘어 고성에 갔다가 산을 넘어 서울로 오는 길에서 버스에 세 개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다른 문제들까지 겹쳐 서울도착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밤 9시가 돼서야 도착하였다. 주문진교회를 떠나던 아침에 점심에 먹으라고 쥘 계란 12개를 싸줬는데, 최순국 형제는 먹지를 앓았고, 테일러에게는 너무 많은 양이었으며, 이 여행에서 50대 초반의 테일러는 적어도 20대 초반의 최순국보다 자신이 더 잘 어려움을 견뎌낸 것 같다고 회회하였다(“To the Uttermost Parts,” FCK, 1957년 6월호).

⑤ 1957년 4월 29일

1957년 4월 29일에 서울과 인근 지역의 목회자, 장로 및 집사들의 연합집회를 열었고, 40명이 참석하였다. 테일러는 집회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집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집회는 새로 지은 인천교회에서 모이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적었다<“Report of Progress,” FCK, 1957년 6월호>.

⑥ 1957년 6월 3-10일

테일러는 6월 3일에 충청도, 5일과 7일에는 전남, 9일에는 제주도에서 연합집회를 열 계획을 세웠다. 테일러는 이들 집회들을 통해서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절반 이상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7월말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만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테일러는 가능하다면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순회할 계획이었다<“Report of Progress,” FCK, 1957년 6월호>.

⑦ 1958년 5월 18-25일



하이드 그리스도의 교회(1958년)
(임혜숙 전도사, 전남 무안군 하의면 하태리)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8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한길사 직원 방 아무개(통역) 씨와 동행하여 1958년 5월 18일 주일에 부강교회를 방문하였고, 송(조순) 형제가 운영하는 판암동 애생원을 방문하였다. 5월 19일에 광주로 내려갔고, 20일(화)에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교회(최용호 목사의 사모 박정자의 고향 교회)를 방문하여 100여명이 참석한 수요일 저녁집회에 설교하였다. 22일(목)에 강진, 23일(금)에 진성구 장로의 모교회이자 6·25전쟁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교회, 24일(토)에 전남 무안군 하의면 하태리 하의도교회(임혜숙 전도사)를 방문한 후, 25일(주일) 오후에 상경하였다<“Daily Doings,” FCK, 1958년 8월호>

⑧ 1959년 6월 8-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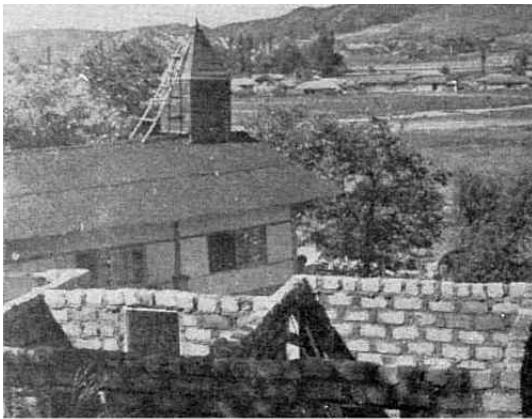
테일러 선교사는 1959년 6월 8-10일 전라도지방을 순회하여 박치환 형제가 새로 개척한 곳에서 설교하였는데 이날 읍장을 비롯해서 21명이 결신하였다<“Midsummer Harvest,” FCK, 1959년 10월호>.

⑨ 1962년 2월 7-8일, 2월 16-23일, 3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2년 3월호에 따르면, 2월 7-8일 홍성으로 선교여행을 하였다. 안양교회 장주열 목사와 안재관 목사가 동행하였다. 홍성에 장 아무개 목사가 시무하는 1년이 채 안된 교회가 있었다. 테일러는 2월 16-23일 순회 때 목포교회를 가는

길에 흥성에 들러 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주일(18일)에는 목포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월요일에는 임 아무개 통역과 함께 전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목요일(22일)에 군산을 거쳐 23일 상경하였다. 또 3월 중에는 전주를 다시 방문할 것과 목포에서 열리는 일주일 성경공부에 참석하여 최윤권 목사와 함께 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22개 교회들에서 2명씩 참석하는 모임이라고 소개하였다<“To the Villages and Cities,” FCK, 1962년 3월호>.

(3)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적절히 배분하였다.



조동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충주시 동양면)

존 T. 채이스 선교사는 1949년 2월 중순부터 주간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지와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펼쳤다. 채이스는 9월 1일까지 50,000달러 기금이 모이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재입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금마련이 늦어지는데다가 이듬해엔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입국을 포기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존 힐의 첫 번째 부인 에스더 비반즈가 일으킨 스캔들 처리문제로

존 힐과 폴 잉그램 사이에 또 존 힐과 존 채이스 사이에 분열이 있었고, 이 사건은 선교사들이 모두 사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채이스는 기금마련이 늦어지고 자신이 재입국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까지 보실 수 있는 그분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들 예배당을 짓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예배당들을 지었더라면 전란 중에 모두 파괴되었을 것이다”<“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해롤드 테일러가 한국에 왔을 때, 채이스는 선교부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테일러에게 인계하였고, 쓰고 남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은 테일러 가족을 후원하는 오클라호마 마이애미 제일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넘겼다. 1955년 11월에 입국한 테일러는 이듬해 2월에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설문지를 보내 교회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후원계획을 세웠고, 마이애미 교회는 테일러에게 이 기금을 보냈다.

테일러의 후원계획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에서만 후원을 하였다. 테일러의 이 후원정책은 채이스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조성할 때 세웠던 계획, 곧 꽤 훌륭한 예배당을 10여 채 이상 세우겠다는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정책은 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에게 그를 배척하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에 테일러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채이스가 원했던 것만큼 훌륭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11개의 새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1개의 구 건물이 장로교회로부터 매입되어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사용되었으며, 34개의 교회들이 신축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금을

받았다. 테일러는 이 사실을 1959년 10월호에 실은 ‘기독교회선교부의 역사’(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에서 밝혔다<“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 6개월 동안 보고 느낀 소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시골에 있었고,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이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훌륭한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담임목사의 생활을 책임질 만큼 넉넉하지 못했고, 일부 교회들은 일주일 내내 체류하는 목회자를 두지 못하였다<“To the Far Corners,” FCK, 1956년 6월호>. 테일러는 이 무렵 전국에 교회가 75개 있었지만, 그 가운데 5개 정도만 도시에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시골이나 도시들의 공유지를 점유한 판자촌 또는 피난민촌에 있었다고 전하였다<“Preachers and Problems,” FCK, 1956년 6월호>. 2년 후인 1958년 2월호에서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후원받은 교회들이 대부분 텐트나 초라한 건물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초가지붕이거나 마루도 없는 교회들이었다고 적었다<“The Chapels Program,” FCK, 1958년 2월호>.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교회의 형편을 조사하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후원이 시급한 세 개의 교회들에게는 건축 또는 매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오클라호마 주 마이애미 교회로부터 받은 10,000달러 가운데서 은행 수수료로 10달러, 대구교회 예배당 건축에 460달러, 울산교회 예배당 매입에 1,400달러, 용신(영신?)교회 예배당에 101달러 72센트를 지불하고 8,028달러 28센트의 잔액이 남았음을 보고하였다<“Chapels in Korea,” FCK, 1956년 6월호>.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1956년 2월에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교회들의 역사, 재적인원, 출석인원과 건물상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답장을 보내온 교회들 가운데 그 당시 침례 교인이 1,37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명 미만인 교회가 9개, 20명 미만인 교회가 22개 이상, 50명 이상인 교회가 4개였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출석 교인들은 침례 교인들보다 10배 정도 많았다. 이들 가운데 몇몇 교회들만이 적절한 크기의 건물을 갖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최훈선 목사)

교회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테일러는 기금이 헛되게 쓰이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었다. 또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교회들에게 알렸다<“The Chapels Program,” FCK, 1957년 6월호>.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가 발행될 시점까지 테일러가 도움을 준 교회는 39개였다. 아직 돕지 못한 교회들까지 다 후원

하려면 5,000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점까지 테일러가 받은 기금은 총 28,857달러 83센트였다. 이 가운데 존 T. 채이스로부터 넘겨받은 돈은 18,424달러 88센트였다. 그리고 39개의 교회들을 건축하거나 수리 또는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6,776달러 51센트였고, 송금료 22달 41센트, 환전료 10달러, 기타(순회 및 국내 송금료) 119달러 12센트였으며, 잔액은 1,929달러 79센트였다<“The Chapels Program,” FCK, 1957년 6월호>.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서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후원받은 교회들이 대부분 텐트나 초라한 건물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초가지붕이거나 마루도 없는 교회들이었다고 전하면서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덧붙여서 테일러는 1만 달러를 더 모금해서 쓰게 되면 총 5만 달러를 쓰게 되는 것이지만 (그간 쓰인 기금이 4만 달러였던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때 힐과 잉그램 가족을 위해서 일본 도쿄에 매입했던 두 채의 주택을 매도한 대금도 테일러에게 전달되었다.) 이 5만 달러는 미국에서 예배당 한 채 짓는 비용에 불과하고, 한국의 교파교단들의 큰 교회 예배당 두 채 정도를 짓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적었다<“The Chapels Program,” FCK, 1958년 2월호>.

이 당시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처한 형편을 기준으로 볼 때, 존 T. 채이스가 처음 기획했던 대로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 번듯한 예배당을 단 한 개라고 건축했어야 한 일과 테일러가 행한 대로 기존 교회들의 건축보조와 예배당들의 수리보수에 기금을 쪼개 쓴 일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잘한 일이었는지 아쉬움을 모두 다 떨쳐버리기 쉽다.

(4)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일 년에 1-3차례 발행하였다.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Thank You

Some of you may think of "Taylor's out there all alone." But we don't feel that way. We are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re is a great number of Christian friends back of us in prayer, and, too, it is by your giving that we are able to be here and to do what we can in Korea. It is a great fellowship in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in the ministry of Mercy to these people. We give thanks for you and pray for you daily. From your letters we see that you are aware of the fact that we need help. We are glad to say that we indeed have help. God is with us! It is His work and He is working. We have faced big problems and there are still more, but we are relaxing. We see that we are to do only the difficult (and that with help from above), while the Lord Himself is doing the impossible. All glory is for Him!



On Palace Grounds in Seoul



Opening Day at Pachen Middle School

house reminded us of a Korean bus, filled twice without unloading! I understand that two whole villages tried to get inside that night. It was a good meeting, with four responses to the Gospel. After walking 8 miles, riding fifty (rough) miles and preaching twice, I was ready for bed. But, no, we will first have a meeting with the young people and go to bed later!

On Monday we had a baptismal service in a pool beside the rice fields. Then we walked back to Kimchon and took the train to Shintan where Bro. Kim Dong Yul has been pastor. I spoke on "The Bride of Christ," and learned afterwards that there were two Methodist preachers in the audience! The next day we had an early start with our first message at the 4:30 a.m. prayer meeting.

Then some more sleep before breakfast and trip to the next church at Shin-branch. Bless the Lord

joy for you folk and for us to help these innocent victims. Surely as Christians we can do no 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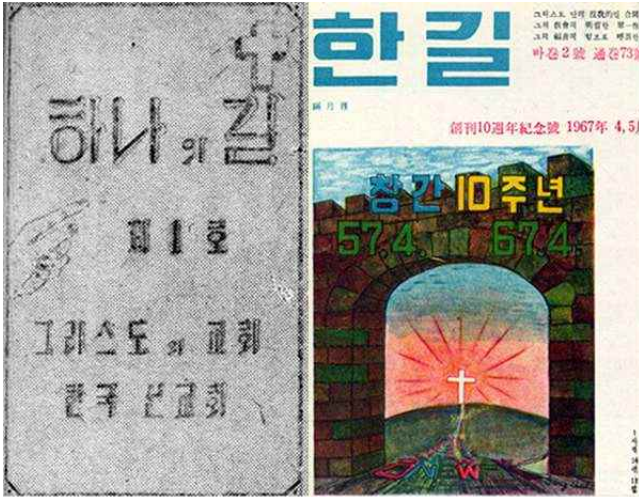
Two more handicapped children were pointed out to us. They are deaf and dumb. Another, a small girl, though she is 12 years old, caught our eye. She was inside one of the rooms, and we noticed that she seemed to be in distress. Although she might easily be judged one of the prettiest children among the 150 in the Incheon Orphanage, she wore an expression which dug deep into one's sympathy. We thought, "What would the folk in the States do if they could see her?" But we knew the answer, from the many responses which have been made to the call of Korea's needs, both through missionaries and by the U.S. servicemen. The next day we made an appointment at the hospital in Seoul and she entered there the following week. She is now back at the orphanage, in a coat after an operation on her back. They said it was "T.H. of the bone." Bro. Ee, in charge of the Orphanage, says that this girl has good faith in the Lord, and we know that the Lord is able, so let us pray for Miss Kim Hyun Ja.

We have had one other similar decision to make with another girl, this one the small daughter of one of the preachers. We saw her at her home at Kimchon on April 1st. She is 10 years old. I saw that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her eyes. They said that she was slowly losing her sight. Knowing that this

필자가 쓴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5)>의 상당부분은 선교사들이 발행한 선교지들 덕분이었다. 이 선교지들을 받아본 미국 그리스도인들 혹은 대학들이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관하여 디지털화하지 않았다면,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이야기 상당 부분이 밝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후원자들에게 썼거나 프린트했던 선교지들의 상당부분을 확보하였다.

(5) 1957년에는 월간 <한길>(One Way)을 창간하였다.

해롤드 테일러는 내국인들의 이견을 좁히고, 자신이 주도하는 '비교파교회 플랜' 곧



한길 창간호 표지(1957년 4월호) 및 창간 10주년 표지(1967년 4,5월호)

‘신약성경기독교’를 전국에 소개하며, 목회자들의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기 위해서 월간 <하나의 길>(One Way)을 1957년 3월에 창간하여 4월에 창간호(제1호)를 1,500부 발송하였으며, 1962년 10월 1일 <한길>로 개명하였다. <한길>은 처음에는 신문 형식으로 발간되다가 13호부터는 잡지형식으로 바꿨다. 매호마다 묵상(QT), 교리, 선별된 기사들이 담겼고, 12-16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말에는 합본이 제공되었다. <한길>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뿐 아니라, 많은 타 교파 교회들과 학교들, 그리고 군목들에게도 발송되었다(<Report of Progress,> FCK, 1957년 6월호).

테일러는 <한길>이 목회자들에게 신약성경의 계획과 교리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따라서 <한길>에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환원운동과 신약성경교회정신 및 신앙들이 담겼고,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 발톤 스톤의 <스프링필드장로회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아이작 에레트의 <우리의 위치>(Our Positions)를 비롯해서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저명한 학자 및 목사들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번역되어 실렸다.

(6) 신학교 캠퍼스 이전 프로젝트(New Seminary Project)를 실행에 옮겼다.



서울성서신학교는 1937년 존 T. 채이스에 의해서 한국성경훈련원으로 시작되었으나 1940년 3월 25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선교사들의 철수로 문을 닫았다가 1949년 보화기에 개교하였으며, 1981년 3월 2일 대한 기독교신학교와 통합하여 오늘날의 서울기독교대학교가 되었다.

1950년대 전반기에 있었던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와 힐(John J. Hill) 선교사의 분열은 협의회와 총회로 나뉜 분열의 전조적 사건이었다.

힐은 채이스의 발굴에 의해서 선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채이스의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에 소속된 선교사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직접후원 방식의 선교정책에 적극적이었던 채이스의 신념 때문에 힐의 신분은 채

이스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것이었다.

태평양전쟁의 발발조짐으로 조선주재 교단들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1940년 11월 16



1959년 3월 13일 서울성서신학교(송월동) 졸업식

일 인천항을 통해서 철수한 이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는 1949년 2월 18일 존 J. 힐이 재입국하기까지 대략 8년간은 선교사들이 장기 체류할 수 없었던 공백기였다. 그 기간에 존 T. 채이스가 몇 차례 입국하여 단기선교를 펼치긴 하였으나 신학교는 폐쇄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다시 연 것은 존 J. 힐이었다. 입국직후 힐은 채이스의 한국인성경훈

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다시 열었으나 후에 그 이름을 서울성서신학교(Seoul Bible Seminary)로 변경하였다. 이 신학교는 1949년 3월 15일 연지동에 마련된 힐의 임대주택에서 시작되었으나 학생이 많아져 필운동교회로 옮겨졌으며, 6·25전쟁 직후에 다시 잠시 중단되었다.

신학교는 채이스가 송월동 선교부에 1937년에 한국인성경훈련원이란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40년 3월 25일에 첫 졸업생들인 김요한 목사, 최상현 목사, 성낙소 목사, 김문화 목사, 박판조 목사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박판조를 빼고는 모두 이미 각자의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거나 구세군 사관출신이었으며, 박판조는 학생전도사였다. 이듬해에 이 신학교는 일제에 의해서 폐교 당하였다.



1960년 4월 1일 서울성서신학교 졸업식
 전년 6월 3일에 마도된 송월동 신학교에서의 마지막 졸업식이었다.
 앞줄 가운데 좌측부터 에이더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부부, 김동수 목사
 (동역), 리처드와 멜바 래쉬 선교사 부부

해방 후 이 신학교의 문을 다시 연 인물은 존 힐 선교사로서 1949년 3월이었다. 이때 힐은 ‘훈련원’ 대신에 ‘신학교’(seminary)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서 서울성서신학교가 힐에 의해서 1949년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1955년 3월 3일의 졸업식을 제1회로, 1960년 4월 1일 졸업식을 제4회로 본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고 본다.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되찾지 못해서 6·25전쟁

이전에는 잠시 연지동과 필운동에서 신학교가 개교되었으나 힐이 1949년에 다시 연 신학교는 이름만 ‘institute’에서 ‘seminary’로 바꿨을 뿐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송월동 선교부 신학교의 연장자였고, 또 송월동 선교부가 팔릴 때까지 신학교가 그곳에 있었으며, 힐 선교사는 채이스 선교사가 하던 일을 맡아 지속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서울성서신학교의 시작은 1949년이 아니라, 1937년이라야 옳다.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연역은 이 점을 반영하여 개교연도를 1937년으로 잡고 있다. 참고로 1955년까지 힐을 도와 신학교에서 교수와 교감을 지낸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



역촌동의 7,087평의 서울성서신학교 새 부지(1960년).
구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부지는 총 396평이었다.

계>(1958년경)와 <신약교회 목회학>(1953년)에서 이 신학교의 이름을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라고 불렀다.

서울성서신학교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

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 7,087평의 역촌동(현재 신사동) 땅 위에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 1963년에 개교할 때까지 잠시 중단되었으며<“The New Location,” FCK, 1960년 5월호>, 그 공백기에 목회자가 양성된 곳은 힐 선교사가 1959년 12월에 대전에서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였다.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전국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75개였고, 서울성서신학교 학생들은 40여명이었으며,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서울에까지 와서 가르쳐야했기 때문에 교과과정은 과목당 6주씩 집중교육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6주간 집중교육 방식은 일본 오사카성서신학교(Osaka Bible Seminary)에서 하던 방식이었다. 장성만 목사가 1961년에 마크 맥시(Mark G. Maxey)를 비롯한 일본 주재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3개월짜리 비자를 가까스로 두 차례 받아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두 학기를 마친 것도 이 6주간 집중강의였다. 장성만 목사의 멘토(mentor)였던 마크 맥시가 가노야에서 운영한 학교(Institute at the Christian Center)도 6주간 집중강의를 하곤 하였다<Mark G. Maxey, “Linkletter No. 109,” LinkLetter: A Monthly Report by Mark G. Maxey Family to the Friends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Kanoya, Kagoshima, Japan, March 1960: 1>. 강사초빙문제와 학생들의 경제적 형편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일본도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정기간 생활비를 벌어야했고, 선교사들과 내국인 목회자도 연중 내내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교통도 나빠 먼 길을 매주 오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1955년 11월 한국에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를 인수받고, 1959년 6월 3일까지 신학교 3층 건물을 포함해서 서대문구 송월동 32-6번지의 선교부 재산을 모두 팔았고, 그 때문에 북서울 역촌동(현재 신사동)에 캠퍼스부지를 매입하여 교사와 기숙사를 짓기까지 몇 년 동안 신학교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처음부터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교부(교육부)인가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었고, 또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넓은 캠퍼스와 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일을 추진하였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1956년에 신청한 인가신청이 부지가 8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거부되었다. 이때부터 테일러는 신학생들이 늘어나 장소가 협소다면서 송월동 부지와 건물을 팔고 더 싸고 넓은 부지를 물색하여 선교부와 신학교를 이전시켜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인가를 받아야 좋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들이 병

역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eminary Registration,” FCK, 1956년 6월호>. 그러나 그의 재임기간에 대학으로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재정결핍이 여러 이유들의 하나였겠지만, 정부인가가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을 것이라는 사고(思考) 즉 일부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가졌던 편향된 사고 때문이었거나 동일한 사고를 가진 후원자 또는 후원교회들의 반발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자보다는 후자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20세기 초중반에 자유주의 신학에 굴복한 유서 깊은 33개의 대학 및 대학교들을 역시 자유주의 신학에 편향된 ‘그리스도인의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에게 빼앗긴 충격적인 경험을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후원이 절대적인 테일러 선교사로서는 그들의 반발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대학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Disciples of Christ)의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와 대학(교)들 및 신학대학원들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탈퇴한 독립교회들 곧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성경신학의 보수를 위해서 세운 대부분의 대학들의 명칭이 ‘Bible College’ 및 ‘Bible Seminary’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모집의 수월성과 생존을 위해서 ‘Bible’을 ‘Christian’으로 대부분 바꿨고, ‘College’에서 ‘University’로 상당수가 개편되었다. 온라인과 첨단 디지털시대가 되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목사나 신부가 되기를 외면하면서 미국에서도 신학교들과 신학대학들이 학생모집이 되질 않아 재정곤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서 오랜 역사와 명성을 쌓았던 신학교와 신학대학들조차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들> 1958년 8월호에서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두 개의 확연이 드러난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70여개의 어린 교회들이 있었고, 그것들 대부분이 2-3명의 신실한 목회자들의 열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로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떼를 제대로 돌볼 훈련된 목회자들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개의 교회들이 시골이나 피난민 지역들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들에 교회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Working with Him,” FCK, 1958년 8월호>.

서울을 제외한 다른 10개의 대도시들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단지 6개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2개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오직 한 개의 교회만이 한명의 장로를 두었다고 하였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단지 몇 개만이 상태가 좋은 교회였고, 그들 가운데 1958년 5월 22일에 방문했던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교회는 80여명의 성도에 2명의 장로가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장로들이 목회자를 내보냄으로써 그 목회자가 인근지역의 타교단으로 갔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작은 교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만형교회가 대도시에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학교, 정부로부터 인가가 난 신학교가 필요하다고 확신하였다 <Ibid>.



서울성서신학교 기공식(1961년 8월 28일)
12개 교회들의 대표들이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일 년에 가까운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또다시 부동산소개소에 부지와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고, 그제 시세가 올라 4만 달러 정도는 되어보였다. 그 돈이면 송월동 선교부의 부지보다 20배 정도와 초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고 하였다 <Ibid>.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 개교식
앞줄 왼쪽부터 김진문 목사, 박두진 시인, 정인소 박사, 최윤권 목사, 해롤드, 에이더 테일러 부부, 고든, 사촌 패튼 부부, 한 사람 건너 차원봉 목사
휴교상태였다 <Ibid>.



1964년 3월 9일 서울성서신학교 졸업식
앞줄 왼쪽부터 이종만, 고든 패튼, 둘 건너 최윤권, 귀광서, 해롤드 테일러, 성낙소 (이상 목사)

지에 있었다. 그곳에 선교부, <한길> 사무실, 2층에 집회소(Gospel Hall)와 전도센터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8월호에서 월드비전의 래츠(Mr. Raetz)가 '그리스도인 미군센터'로 쓰기 위해서 송월동 선교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계약서까지 쓰고, 7월 한 달 동안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하였다. 그런데 1959년 5월호에서는 1958년에 선교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던 사람에게 할부금 형식으로 계약하였으나 매입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1,500달러의 수입이 생겼으나 거의

이 무렵 송월동 선교부신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25명이었으나 새 캠퍼스의 수용능력은 25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테일러는 교수총원과 관련해서 최윤권이 산호세 신학대학 졸업을 1년 남겨놓았고, 최순국이 링컨성서대학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마쳤으며, 김진문이 1960년부터 교수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시점에 신학교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9년 10월호와 1960년 2월호 따르면, 선교부 건물과 토지는 1959년 6월 3일에 팔렸다. 60일 이내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사할 곳을 찾아야 했다. 테일러는 집을 비워 줘야 할 날짜를 이틀 남기고 방 8개짜리 집을 일년간 전세로 얻었다. 2층 건물로써 송월동 32-6번지에서 가까운 141번

두었다. 나머지 짐은 특히 신학교의 책걸상은 이전 송월동 신학교 건물의 지하실에 12월 1일까지 임시로 둘 수 있도록 새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 테일러 가족은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전세 내어 이사하였다<“Moving Days,” FCK, 1959년 10월호>.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1년 10월호에 따르면 테일러 가족은 안식년을 마치고 6월에 한국에 돌아왔다. 그리고 테일러는 동년 8월 28일에 12개 교회들의 대표들과 함께 기공식을 갖고, 2층 교사와 남녀기숙사 및 식당을 건축하였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서울성서신학교는 새 캠퍼스에서 1963년 3월에 개강하였다. 교수들은 테일러 선교사, 최윤권 목사, 1962년에 입국한 고든 패튼(Gorden Patten, 배도은) 선교사, 박두진 시인 등이었다<“After Three and One-Half Months,” FCK, 1961년 10월호; “Disappointed - But” and “A Place for the Pattens,” FCK, 1962년 3월호>.

(7)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보육원을 직접운영(부평) 또는 후원(인천 송의동, 대전 판암동)하였고, 구호물자를 보급하였다.

부평보육원은 힐 요한 선교사와 리라 톰슨(Lila Thompson Hiller)이 송월동 선교부에서 시작한 보육원으로써 리라 톰슨이 부지매입과 건축을 책임지고 부평으로 옮긴 것 이어서 기독교회선교부가 모든 살림을 책임졌다. 또 기독교회선교부는 대전 애생원을 직접 관리하였고, 인천 보육원과 함께 학비, 책값, 기성회비 등을 후원하였다.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전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부평 보육원(좌측 상), 인천 보육원(좌측 하, 송의동교회), 대전 판암동 애생원(우측)의 1957년 모습

테일러는 이들 보육원생들에게 매주 1회 예배와 연 2회 성경학교를 개최하여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18세가 되어 퇴원하는 원생들 중에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성서신학교에는 보육원 출신의 신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9년 5월호에 따르면, 1958년 10월에 부평보육원의 원생들이 원장에 반대하여 데모를 일으켰고, 그 수습책으로 설하운 목사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설목사는 이 보육원을 도내 최고 보육시설 가운데 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아냈다<“These Little Ones,” FCK, 1959년 5월호>.

설하운 목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2월호에 따르면, 1956년 12월 27일 김형욱 자매와 테일러 선교사의 주례와 김동수 목사의 통역으로 혼례를 치렀다. 신학생 때 설하운은 선교부신학교의 관리과장으로 섬겼고, 구호의류를 보육원들과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1957년 3월에 선교부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도원동교회를 시무하다가 부평보육원 원장 밑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 취임하였다<“Korean Wedding,” FCK, 1957년 2월호>.

부평보육원에서 발생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1958년 12월 대전 판암동 애생원에서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일간지에 기사화가 되고, 법적문제로까지 번졌다. 테일러 선교사는 해결책으로 전에 부평보육원에서 총무로 일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사임하고, 서울에서 전에 했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박정훈 형제를 불러 원장으로 앉혔다. 테일러가 1960년 1월 11일에 애생원을 찾았을 때, 애생원은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건물에 대한 담보권이 풀렸고, 새로운 이사진, 새로운 원장과 새 이름을 갖게 되어 마치 새로운 장소 같았다고 전하였다<“These Little Ones,” FCK, 1959년 5월호>.

<한국에 그리스도들> 1957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보육원들에 보낼 헌옷들을 1956년 여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10월과 4월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맞춰 미국의 형제들이 구호물자를 보내주기를 요청하였다. 10월에는 보내줘야 보육원들이 겨울채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테일러는 이 옷들을 수선할 재봉틀도 보내 줄 것을 미국 교회들에 요청하였다. 보육원 아동들의 숫자만큼이나 수선이 많다보니 재봉틀의 수명이 짧았던 것이다<“Clothing,” FCK, 1957년 6월호>.

(8) 세 개의 중학교들의 설립을 돕고 순회하였으며 후원하였다.



<한국에 그리스도들> 1956년 6월호, 1957년 6월호, 1959년 5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세 개의 중학교를 돕고 있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들 학교들이 발전하여 고등학교를 설치하게 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목회자 지망생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두 곳은 필요한 도움을 줬고, 한 곳은 매월 75달러씩 지원하였다. 이 액수는 교사들 봉급의 절반이 조금 못되는 액수였다. 매월 지원했던 학교는 영광농축기술학교로써 38선 근처 포천에 있었다. 테일러 선교사가 설립자였고, 박혁 목사가 교장이었다. 그곳에 박혁 목사가 시무하는 그리스도(인)의교회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생 17명으로 시작되어 62명으로 늘었고, 대부분 남학생들이었다. 농업을 강조하는 중학교로써 매일 성경공부를 가르쳤다. 이 학교 캠퍼스 안에 고등공민학교가 별도로 하나 더 있었다<“Middle Schools,” FCK, 1956년 6월호; “Middle Schools-A Real Need,” FCK, 1957년 6월호, 1959년 5월호>.

신갈에는 이기구 목사가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었다. 금광을 운영하는 동서의 도움으로 교사를 건축하였지만, 5천 달러 정도의 빚 때문에 거의 팔릴 뻔하였다.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테일러는 입학을 거부하면서 고등학교 설치를 주문하였다. 1957년 봄에 시작된 고등학교에 1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였고, 그 가운데 7명이 신학교 지망생들이었다. 이 무렵 전교생이 95명이었다<“Middle Schools-A Real Need,” FCK, 1957년 6월호>.

서울 근교에 김 아무개 형제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다. 300여명의 학생들이 대부분 북에서 넘어온 가족들의 자녀들이었다. 난로도 없는 세 개의 천막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졌다<“Middle Schools-A Real Need,” FCK, 1957년 6월호>.

(9)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신약성경교회 조직에 힘썼다.



좌측 상: 1956년경의 돈암동교회(천막교회), 우측 상: 1958년 건축 중인 돈암동교회와 이순환 목사 가족. 테일러 선교사는 100여명이 모이는 돈암동교회 건축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프로젝트를 종결하고자 하였다.'
아래: 1959년 10월 19-21일에 돈암동교회에서 모인 목회자 친목회.
'송 창립 22해 돌맞이'는 돈암동교회 창립(1937년) 22주년을 뜻한다.

테일러는 1961년 3월 13일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은 그동안 선교사들 각각의 명의나 그들의 대리인 명의로 되어 있던 당시의 재산들을 모아서 설립된 법인이다. 이 재단법인에는 강릉에 있던 래쉬 선교사 명의의 재산과 기독교회선교부가 운영하던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 그리스도의교회 보육원(1951년 설립), 대전 그리스도의교회 보육원(애생원, 1950년대 초 설립), 월간 <하나의 길(한길)> 등이 귀속되었다. 초대 이사장 해롤드 테일러, 상무이사 1인(조셉 세걸키), 이사 3인(에이더 테일러, 리차드 래쉬, 맥신 세걸키), 감사 1인(멜바 래쉬)으로 구성되었다.

1964년 이사진이 이사장 해롤드 테일러를 제외하고 이복선, 배도은(미국명 고든 패튼), 박정훈, 박근일로 교체되었다[최재운,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사> (태광출판사, 2005: 106-109, 134-139)].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0년 2월호에서 창립 22돌을 맞이한 돈암동 교회가 1959년에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한국의 다른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돈암동교회도 역시 구성원들의 견해와 행동에 의해서 또는 상충하는 교리들에 의해서 혼란에 빠져들었다. 7월에 돈암동교회의 대표자들이 선교사를 찾아왔다. 그들의 설교자가 교회를 침례교회로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반가량의 교인들이 예배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교사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테일러 선교사는 양진영이 모인 자리에서 입장을 전했고, 수요일에 침례교 목사는 사임하였다. 그 이후 테일러는 돈암동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혹은 치리목사로 사역하였다. 27명이 침례를 받았고, 출석인원 25명이 50명으로 배가되었다. 9월에는 성경공부 반을 조직하여 기본 교리를 가르쳤다. 또 제대로 된 신약성경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수정관이 포함된 정관(조직플랜)을 만

들었다. 테일러는 돈암동교회를 모델로 삼아 모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신약성경교회로 조직될 수 있기를 바랐다<“Ton Am Dong,” FCK, 1960년 2월호>.

(10) 선교사 가족들을 모집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다.

테일러는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과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을 선교사로 영입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래쉬 선교사 가족(좌측부터 리처드, 돈, 도로시, 멜바, 1957년 이전)

래쉬 가족은 1957년 5월 27일 배로 미국을 출발하여 6월 24일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27일 서울에 도착하였다<“First Word from the Lashes,” FCK, 1957년 9월호>. 래쉬 가족은 1년 정도 기독교회선교부에 머물며 한국말을 익히는 동안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한국교회 상황도 살폈다. 그리고 나서 1958년 5월 10

일 강릉으로 이사하였다. 신학교에서는 9월 12시 30분에 송별파티를 열어 환송하였다. 이후 래쉬는 부산으로 옮겨 장성만 목사와 더불어 경남정보대학을 일구는데 힘썼으며, 서울성서신학교와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 모두에 필요에 따라 협력하였다.

고든 패튼은 1954년에 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물질 영적 궁핍을 깨닫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1960년에 과정을 마쳤고, 1962년 5월 25일 부인과 두 딸과 함께 미군이 아닌 선교사로서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한국에 도착한지 2개월 후에 셋째 딸이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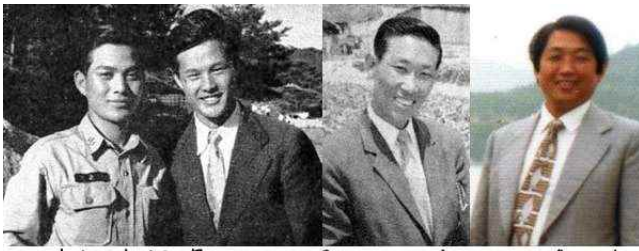


고든 패튼(배도은) 선교사 가족(1962년 입국 당시의 모습)
좌측부터 레이철 마리(Rachel Marie), 샤론(Sharon Collier)과 고든 패튼(Gorden H. Patten) 부부, 리베카 루스(Rebekah Ruth). 패튼 선교사는 1980년 한 해 동안에 부인 샤론의 별세와 네 딸 가운데 장녀 리베카 루스가 존슨성경대학 재학 중에 별세하는 큰 고통을 겪었다. 아도 많았던 때였다. 패튼은 준비가 되는대로 한국에 다시 오겠다는 포부를 갖고 미국

고든 패튼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였다. 아직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오리건 주 코티지 그로브(Cottage Grove, Oregon)의 집을 떠나 군에 입대하였다. 그가 근무를 희망한 나라들 가운데 극동이 가장 마지막 희망지였고, 한국이 희망 근무지 목록의 가장 마지막 나라였다. 그러나 군이 그를 보낸 곳은 바로 한국이었다. 그때가 1954년 6·25전쟁 직후라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전쟁고

에 돌아가 제대하자마자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성경대학에 입학하였다. 패튼은 산호세성경대학에서 오리건 주 유진(Eugene Oregon)의 대학가(College Street) 그리스도(인)의 교회 출신인 샤론 콜버(Sharon Collver)를 만나 결혼하였다[“A Place for the Pattens,” FCK, 1962년 3월호];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한성신학교, 1991: 151-153)].

(11)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지도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추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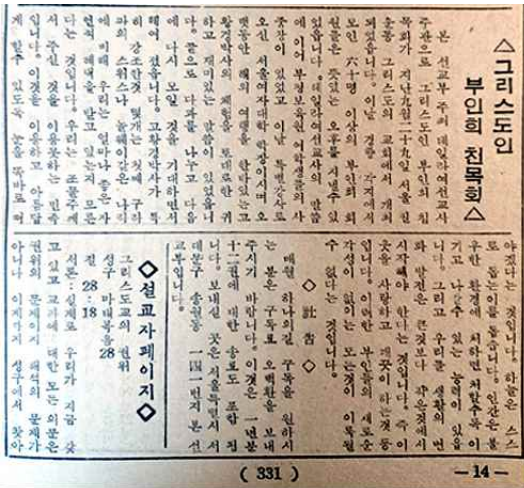


좌측부터 최윤권 목사(1956년, 중위로 제대 후 1956년 12월 31일 도미 유학), 최순국 목사(1956년, 1958년말-1959년 초 도미 유학), 안재관 목사(1959년, 1960년대 초 도미 유학), 김진문 목사(1980년대, 1970년대 초 도미 유학)

<한국에 그리스도를>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사진과 함께 기사화하여 미국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유학생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비록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문화와 내국인들의 정서를 잘 헤아리지 못하여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학교와 인재를 키우고자했던 그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만하였다.

테일러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서울성서신학교를 역촌동으로 이전하여 발전시키는 동시에 내국인 교수진과 교회지도자 확보를 위해서 인재발굴에도 힘썼다. 테일러는 최순국, 최윤권, 김진문, 안재관 등을 발굴하여 미국유학을 추천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선교지

(12)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를 조직하여 월1회씩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였다.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 제회 모임 기사
1961년 9월 29일 필리핀교회에서 60명 이상의 부인들이 모여 제회 모임을 개최하여 서울여자대학교 학장 고향경박사의 강연을 들었다<한길: 하나의 길>(1961년 10월호): 14.

테일러 선교사 부부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친목회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월1회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고 추진하였다. 당시 서울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7개 있었고, 한국 교회들의 성도는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상호 독립적이었다. 따라서 교제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교통비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함께 모여야 할 목적과 동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회선교부’가 주최하고 테일러 선교사의 사모 에이더가 주관하여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 제1회 설립모임이 1961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열렸다. 경향 각지에서 60명 이상의 부인들이 참석하였다. 에이더 테일러 선교사의 말씀과 부평보육원 여학생들로 구성된 사중창이 있었다. 이어서 특별강사로 모신 서울여자대학의 학장 고향경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고 박사는 여성으로서 세계 여행가이자 제네바 유엔회담의 한국대표였다. 이 날의 뜻깊은 행사에 대해서 에이더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한길: 하나의 길〉 1961년 10월호: 14; Ada Taylor, “New Steps in Christian Fellowship,” FCK, 1961년 10월호].

그녀의 연설에서 고 박사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했듯이, 재건이 지속되려면 그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가진 두 나라들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때 일어섰고, 오늘날 노르웨이는 전기를 개발함으로써 암흑기에서 벗어났고, 스위스는 세계의 윈터랜드(산악지형)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장애는 그들이 강한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어떻게 핸디캡을 더 큰 승리로 바꿔야 하는지 지적하였습니다.

부평보육원의 10대 소녀들이 특별 찬양을 하였습니다. 다과가 제공되는 동안 여러 교회의 대표자들이 다른 찬송가들을 불렀습니다. 60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석하여 나눈 화기에애한 교제는 그 모임이 모두에게 축복이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만장일치로 우리는 매달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1. 그리스도인 친교를 제공하고; 2. 그들의 영적 및 문화적 비전을 넓히도록 도우며; 3.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제2회 ‘그리스도인 부인 친목회’는 동년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필운동교회에서 모였다. 에이더 사모의 설교가 있던 후, 숙명여자대학교 김윤숙 교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주부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이후 다과회가 있었다. 제3회 모임 역시 필운동교회에서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모이기로 하였다[〈한길: 하나의 길〉 1961년 11월호: 9].

이 무렵에 그리스도인대회 및 교역자 수련회 등이 활기를 띠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윤권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2003): 68].



교역자회도 생기를 찾기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인대회도 시작되었다. 제2회 그리스도인대회 및 교역자회는 신탄진에서 있었고, 제3회 및 제4회는 서울 임마누엘수도원에서 있었다. 제3회 때는 최윤권 목사가 대회장을 하였고, 제4회 때는 최순국 목사가 하였다. 이때처럼 화기에애한 분위기 가운데 환원운동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던 때도 없다. 이때에 수고한 동역자들 중에는 4·19때 국회의원을 지낸 정인소 박사도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연합회 모임들
좌측 상(1959년): (앞줄)성낙소, (뒷줄)심영진, 장성만, 최보열, 이신
우측 상(1961년 북강교회): ‘신약교회의 환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란 주제와 이신 목사가 강연하는 모습.
좌측 하(1962년 신탄진): 앞줄 우측부터 심영진, 한숙자, 최보열, 이종만, 뒷줄 우측부터 존 할 000, 이준봉, 정인소 박사, 성낙소, 이신, 고광석, 장주열 소교민(동역). 우측 하(1962년 신탄진): 천막 연합회 모습.

하지만, 테일러 선교사는 이들 모임에 대해서 침묵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에서도 테일러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테일러는 ‘비교파교회 플랜’에 적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1959년 8월에 재입국하여 대전 가장동에 정착한 존 힐 선교사는 1961년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연합회와 1962년 신탄진에서 개최된 모임에 모두 참석하였다. 1962년 신탄진에서 개최된 집회 사진에서 최요열 목사(한국성서신학교 교수와 목회자, 목포교회 최요한 목사의 동생)와 한숙자 사모가 중앙 의자에 앉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지도자급 목회자들이 부득이 새소망순복음교회(초중고시절 필자가 출석한 교회)를 맡아 떠나는 부부에게 송별하기 위함이었다. 10년 후 최요열 목사는 필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2년 2월에 한국성서신학교 제2대 교장이 된 김찬영 목사에게 필자를 친필로 소개하였다.

3) 은퇴 후 생활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부부는 1955년 이후 19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활동을 하였고, ‘기독교회선교부’의 모든 일을 후임자인 고든 패튼(Gorden Patten, 배도은) 선교사에게 넘기고 만 70세 때인 1974년에 은퇴하였다. 그러나 부부 모두 은퇴 후의 여생이 길지 못하였다. 테일러는 1976년 5월 15일 교회 제직소풍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오후 8시 13분에 만 72세로 별세하였고, 부인 에이더(Ada Maryellen Sayer)는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산호세에서 1980년 10월에 만 74세로 영면하였다[“Ada Mary Ellen Sayer,” *The Family Records of Elsie Klinger Eaves*: <http://eavesphotos.com/EKE-o/p1295.htm>, 게시일자: 2018년 1월 24일].

4)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회선교부 소속 선교사들

(1) 테일러 Harold Taylor 1904-1976.05.15.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목사, 신학교 교장.

해롤드 테일러는 1904년경에 태어났다. 1924년경 토마스 와 마리아 세이어(Thomas S. and Maria Etta Hoffa Sayer)의 딸인 에이더(Ada Mary Ellen Sayer)와 결혼하였다. 테일러는 1945-46년경 중국선교에 참여했으며 중국이 공산화된 후 일본으로 건너와 동경 요츠야 선교부(Yotsuya Mission)를 도와 선교활동을 하다가 한국 선교사였던

존 채이스(John T. Chase)의 소개로 1955년 11월 13일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선교사가 되었다. 이후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군사혁명, 1972년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격동기 19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1956년 2월에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설문지를 보내서 교회들의 역사, 재정인원, 출석과 건물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테일러는 이 조사를 근거로 1957년 전반까지 39개의 교회에 재정을 지원하였고, 1959년 10월경까지 총 11개의 새 예배당 건축, 1개의 장로교회 예배당 매입, 34개 교회들의 수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전임자였던 채이스 선교사가 6·25전쟁 발발 직후인 7월까지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한 기금에서 충당되었다.

또 테일러 선교사는 부임한 이듬해인 1956년 초에 시작하여 수년에 걸쳐서 도서(島嶼)지방까지 전국의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순방하여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교도소 전도, 학원 전도, 시청각 전도 등에 힘쓰기도 했다. 테일러의 후원계획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의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에서만 후원을 하였다. 테일러는 각 교회가 예배당을 짓거나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자립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가 부담할 수 없는 부분만 보충해 주는 방식을 취하여, 채이스가 남긴 선교기금과 자신이 추가로 모금한 기금을 보다 많은 예배당의 건축과 보수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테일러는 기존의 신학교 캠퍼스 이전 프로젝트(New Seminary Project)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테일러는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3층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 7,087평의 역촌동 땅위에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 1963년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로 개교시켰다.

테일러는 내국인들의 이견을 좁히고, 자신이 주도하는 비교파교회 플랜 곧 신약성경 기독교를 전국에 소개하며, 목회자들의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기 위해 월간 <하나의 길>(One Way)을 1957년 3월에 창간하여 1962년 10월 1일 <한길>로 개명하였다. <한길>은 처음에는 신문형식으로 발간되다가 13호부터는 잡지형식으로 바꿨다. 매호마다 묵상(QT), 교리, 선별된 기사들이 담겼고, 12-16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말에는 합본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뿐 아니라, 많은 타 교파 교회들과 학교들, 그리고 군목들에게도 발송되었다. 이밖에도 테일러는 1956년부터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을 일 년에 1-3차례 발행하였고, 신약성경교회 조직에 힘썼으며, 여성들의 친교모임을 조직하여 월 1회씩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였다.

또 테일러는 6·25 전쟁 이후 심각한 문제가 된 전쟁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보육원을 직접운영(부평) 또는 후원(인천 송의동, 대전 판암동)하였으며, 3개의 중학교 설립을 돕고 순회하며 후원하였다. 또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라시득) 가족과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을 선교사로 영입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이뿐 아니라, 테일러는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지도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최순국, 최윤권, 김진문, 안재관 등의

미국유학을 주선하였다.

테일러는 1961년 3월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은 그동안 선교사들 각각의 명이나 그들의 대리인 명의로 되어 있던 당시의 재산들을 모아서 설립된 법인이다. 이 재단법인에는 강릉에 있던 래쉬 선교사 명의의 재산과 기독교회선교부가 운영하던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1951년 설립),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애생원, 1950년대 초 설립), 월간 <하나의 길(한길)> 등이 귀속되었다. 초대 이사장 해롤드 테일러, 상무 이사 1인(조셉 세겔키), 이사 3인(에이더 테일러, 리차드 래쉬, 맥신 세겔키), 감사 1인(멜바 래쉬)으로 구성되었다. 1964년 이사진이 이사장 해롤드 테일러를 제외하고 이복선, 배도은(미국명 고든 패튼), 박정훈, 박근일로 교체되었다.

테일러는 선교부의 모든 일을 후임자인 고든 패튼(배도은)에게 넘기고 만 70세 때인 1974년에 은퇴하였다. 그러나 부부 모두 은퇴 후의 여생이 길지 못하였다. 그는 1976년 5월 15일 교회 제직소풍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오후 8시 13분에 만 72세로 별세하였다. 부인 에이더는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산호세에서 1980년 10월에 만 74세로 영면하였다.

[주요저술] Harold Taylor, FCK: For Christ in Korea(Digitized by Dr. Scott Seay of the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Indianapolis, Indiana, 2 July, 2015); "Our First Chapel", FCK, June 1956: 1; "No Mama, No Papa?" and "Middle Schools", FCK, June 1956: 1-2, 4; "Seminary Registration", FCK, June 1956: 4; "Preachers and Problems", FCK, June 1956: 5; "Report of Progress", FCK, June 1957: 1-2; Ada Taylor, "Changes at Bupyung" and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Middle Schools-A Real Need", FCK, June 1957: 3-5; "The Chapels Program", FCK, June 1957: 2; "To the Uttermost Parts", FCK, June 1957: 3; "The Chapels Program", FCK, February 1958: 2; "Working with Him", FCK, August 1958: 1; "Daily Doings from Our Diary-May", FCK, August 1958: 2; "These Little Ones" and "Your Middle School Needs You", FCK, May 1959: 3-4; "First Word from the Lashes", FCK, September 1957: 1-2; "Moving Days", FCK, October 1959: 1;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ober 1959: 3-4; "The New Location", FCK, May 1960: 3; "A Place for the Pattens", FCK, March 1962: 3.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46-48, 155;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쿤란출판사, 2018), 131-140,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221-27;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서울: 환원출판사, 2003년 수정증보판), 48,

56, 132; 최재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태광출판사, 2005), 106-09, 134-39.
“Ada Mary Ellen Sayer”, The Family Records of Elsie Klinger Eaves:
<http://eavesphotos.com/EKE-o/p1295.htm>.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